

# “임실, 국가대표 브랜드로”

‘도지사 출마’ 김윤덕 의원, 섬진강 르네상스 지원·치즈산업 고도화 등 제시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김윤덕(전주 갑) 국회의원이 ‘임실군 자체를 대한민국 농촌 문화, 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도약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임실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군이 가진 대표 브랜드 치즈,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수변 관광, 육정호를 중심으로 한 호수 테마 관광,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김윤덕 의원이 지난 8일 임실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지원, ▲육정호 관광 정비 사업 ▲임실 치즈 산업 고도화 지원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 지원 ▲수산물 관광 개발 지원 등 57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임실군은 대한민국 치즈의 대표 성지다”며 “이에 더해 관광, 문화 지원을 활용해 섬진강을 중심으로 치유와 회복 호수 관광의 일번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임실의 대표 브랜드인 치즈 산업 발전을 위해 치즈 생산, 운송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정보통신기술 접목을 통한 디지털화 지원을 통해 2025년 도약을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유호상 기자·임실=진홍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김윤덕 의원이 “오수개의 고장인 임실군에 펌푸드 플랫폼 명견테마랜드 조성, 반려동물 스마트 진료시설 지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반려동물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섬진강 최대의 관광 자원인 육정호의 수질개선과 함께 호수 에코관광, 수상합력레저단지 조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호수 관광의 일번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고려와 조선 두 왕조의 기도로 알려진 성수산을 사립레포츠시설 숲속이영장 조성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호상 기자·임실=진홍영 기자”

# “중기경쟁력위원회 설치, 성장 돕겠다”

‘도지사 출마’ 안호영 의원  
전주대서 일자리 간담회 열고  
“일자리 창출하는 정책 우선  
구인·구인난 해결 시급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만드는 데 제도적 지원할 것”



안호영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전주대학교에서 일자리 간담회를 연 뒤 참석자와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지사 출마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경쟁력위원회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오전 전주대학교에서 진행된 ‘미스터 일자리’를 위해 안호영, 일자리 간담회를 열어 “지역에 있는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청년과 기업이 겪는 구인·구직난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과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이 온오프라인으로 100여명이 참여, 일자리 정책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

안 의원은 “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인재매칭 온택트 채용관을 운영하겠다”고 말한 뒤 “특

히 기술력과 자금력이 확보가 지속적으 필요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준비부터 운영, 전환에 이르기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은 수도권에 주거문제가 심각하고 지방은 일자리가 없다는 지적에 안호영 의원은 “우리 지역의 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안이 우선”이라면서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청년 창업가나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학의 유휴부지나 건

물을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유니버시티(Univer-City) 공약을 발표했다”며 “유니버시티를 통해 대학에 기업공간을 제공하면서 청년들에게는 문화 복지 및 주거시설까지 제공해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청년들에게 안정성 및 휴식이 균형 잡힌 일자리를 제공해야 기업과 청년이 서로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지역 스스로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활성화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기자

# “우리동네 지킴이 ‘자율방범대법’ 본회의 통과 환영”

김수홍 의원 ‘방범 활동 보장 법적 근거 늦게나마 마련돼 다행’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시 갑)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방범대는 1950년대부터 지역사회 안전을 자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활동해 왔으며, 지구대, 파출소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범죄예방활동, 청소년 선도 지원 봉사 등에 앞장서 왔다.



김수홍 의원은 “방범 활동 보장 법적 근거 늦게나마 마련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7명의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를 통해 합당한 대인이 마련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의 통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자율방범대원은 신분보장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김수홍 의원은 “지역사회 민생차원의 핵심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늦게나마 마련돼 다행”이라며 “폭넓게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자율방범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안전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수홍 기자

# “70세 이상 어르신 폐 CT검사 비용 지원”

김관영 도지사 예비후보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코로나19에서 회복된 도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폐 CT검사 비용 지원을 담은 어르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헌법상 명문화하지는 못했지만,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폐 CT 검사 비용을 도에서 전액 지원, 코로나 후유증을



로 사용함에도 농촌은 마을회관에서조차 무료 와이파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북도내 모든 경로당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홀로사는 노인 세대에게 급증함에 따라 독거노인·치매환자

잘 관리해 중증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도시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함에도 농촌은 마을회관에서조차 무료 와이파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북도내 모든 경로당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홀로사는 노인 세대에게 급증함에 따라 독거노인·치매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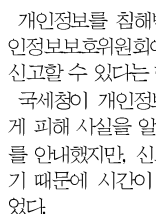
#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 누구든지 신고 가능해진다’

양경숙 의원,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별위)이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따르면, 올해 초 국제형 연방정부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파견에서 발생한 보안 오류로 8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연말정산 서비스에는 소득이나 의료비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어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지만, 국제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당사자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현행법 때문이다.

국제형이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한편 구제절차를 안내했지만, 신고를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양 의원의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누구든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았더라도 당사자는 피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수홍 기자

도내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출마자 총 446명 접수  
민주당 공판위 13~17일 면접 진행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판위)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공모 공고에 기초단체장 후보에 50명, 광역의원 후보에 100명, 기초의원 후보에 296명 등 총 446명 접수를 확인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윤준병 공판위원장(정읍·고창 국회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거론되는 후보 응모자들의 의혹 제기 등에 철저한 검증할 것”이라며 “전북의 미래 4년을 내다보고 전북과 각 시 00104군을 이끌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판위는 오는 13일부터 4일간(17일까지) 후보자 면접을 실시, 이달 말까지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청년·여성 후보자가 증가 공모에 따라 후보 접수자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수홍 기자

# “호남에서 혁신공천 시작, 수도권에 민주당 승리의 바람”

유성엽 도지사 예비후보

유성엽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후보가 “민주당에서 아주 강력한 혁신 공천을 해야 지방 선거 승리가 가능하다”면서 “그 시작은 호남이어야 하고 충청을 넘어 수도권으로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지난 8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9 대선 패배 이후 절박하게 가까운 국민께서 여권에 실망과 좌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다”면서 “지지자들을 위로하고 새



로운 희망을 드리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는 매우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경선방식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관리당원과 일반유권자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자 결정방식을 탈피해 오픈포리아머를 통해 가장 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

가 돼야 비로소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엽 후보는 “다가오는 5.9일 새로운 대통령 취임 이후 치러지는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많은 지지자들에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를 추동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기대를 내려놓는 혁신공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수홍 기자

# 익산시의회,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

익산시의회가 지난 8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 위원에는 김용균 의원과 맹진웅 세무사 박봉열 전 시의원, 주세균·황병규 전 공무원 등이 위촉됐다.

결산검사는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위원들은 세입·세출예산 기

금 등 재정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 회계검사를 실시한 후 감사의견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김용균 의원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꼼꼼히 살펴 익산시가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나경균 박사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위촉

“윤 당선인 7대 공약사업 이뤄지도록 중앙부처와 협력”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8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으로 나경균 박사(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를 위촉했다.

나 위원은 “당선인께서 무거운 중책을 맡고 맡겨주신 만큼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가장 빛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

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망국적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통합을 이룩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라며 “당선인께서 전북발전을 위해 공약하셨던 7대 공약사업들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의 관련 부처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선인이 후보 시절 ‘새만금읍 속도전’이라면서 새만금사업의 완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제·부안·군산지역에 ‘새만금메가시티’를 건설해 전북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수홍 기자

# 권성동 국회의원 원내대표 선출

‘윤해관’ 권성동(4선·강원 강릉) 국회의원의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국회의원 102명의 의원 중 81명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권 의원은 앞으로 1년 동안 원내지도부로 담을 이끌게 된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 의원들은 표결을 통해 권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뽑았다. 국회의원 110명 의원 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해 표결한 결과 권 의원은 81표, 조해진 의원은 21표를 받았다.

김수홍 기자



/뉴스